

# 대만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 사역보고서 (2022년 상반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저희를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사역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1. 갈멜산교회 사역

2021년 초, 무교회지역인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亭)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면서 목요 가정예배로 시작된 갈멜산교회는 2021년 8월 1일 마을회관에서 개척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주일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록 갈멜산교회의 성도가 노인들과 청소년 몇 명밖에 안되는 연약하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갈멜산교회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대만의 지리적 중심점이자 높은 고도에 위치

대만섬의 배꼽과도 같은 최중심이자 해발 1,700m 고지대에 위치한 仁愛鄉 壽亭부락에 위치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우상으로 만연한 대만섬 전체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낸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무교회 지역에 위치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亭) 부락에는 현재 교회가 하나도 없는 무교회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운남성에서 이주해 온 군인가족들(원래 미얀마 출신인 여인들이 운남성의 군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대만으로 이주해 온 후, 남편을 여의고 긴 세월 혼자 살아온 분들이 많음)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아예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랜 세월 무교회지역에서 살다 보니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3) 관광지에 위치

仁愛鄉 壽亭부락은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인 清境農場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현재로서는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근 숙소에 갈멜산교회의 안내문과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인터넷에도 교회 소개를 한다면 대만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호기심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4)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

仁愛鄉 壽停부락에는 이혼 가정, 결손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 미래에 대한 별 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교회당이 건축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음악교실 등을 개설해 키보드나 기타, 드럼 등의 악기 등을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5) 독거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

仁愛鄉 壽停부락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갈멜산 關懷中心(일종의 노인 돌봄센터)'를 만들어 하루 한 끼라도 도시락을 제작, 배달하는 사역을 계획 중입니다. '갈멜산 關懷中心'을 개설하면, 대만정부의 후원을 받아 식재료비를 충당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역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고도 덜어줄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일에배



청소년들을 위한 축복기도



빈민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글씨를 모르는 노인들을 위한 실물 설교



전신갑주 - 성령의 검



전신갑주 -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클수록 좋다!”

나의 자랑 십자가의 복음



오늘은 허 선교사가 설교하는 날



주일예배 후 도시락 애찬



애찬의 마무리는 직접 구운 건강빵



원주민 사역자들의 기도지원!



어머니날 행사 - '건강빵 강습' 전도 초청잔치



청소년들 전도초청 잔치



## 2. 대만의 한인 선교사들 대상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15일부터 총 6주, 18시간에 걸쳐서 대만의 한인 선교사들 11명을 대상으로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이 과정을 이수한 후, 앞으로 각자 사역지에서 대만의 영혼들에게 세미나를 다시 전수함으로써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3. 대만에서의 '성경의 맥과 핵' 교재 출판

대만 교회에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를 보급하고, 대만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허계영 선교사의 저서 <성경의 맥과 핵>을 대만에서 출판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17년 넘게 사역하면서, 선교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인들의 심령을 변화, 양육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사람을, 즉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비록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길지만, 대만의 복음화율이 여전히 6%(그것도 최근 10년 사이에 배가성장한 것으로 그 전 150년간은 거의 정체상태였지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기독교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 신학교와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만에 굳이 선교사가 왜 필요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 7년간 대만에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만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장개석이 1949년에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원들(대부분이 중국의 엘리트들이었죠)을 이끌고 나와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중국 본토를 곧 탈환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왔던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요원하다는 걸 깨닫고 '좁은 대만섬에 정착하기보다는 서방 선진국들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진 대만 이민자들의 후손 중에는 지금도 서방 국가들의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많이 봐서 잘 아는 사실이지만, 캐나다에도 중국교회가 많은데, 그 대부분이 대만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군요.

저희가 중국 운남성에서 시골 벽촌에 사는 소수민족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에는, 선교의 지경이 기껏해야 소수민족 마을을 복음화하는 데 그쳤었고, 저희 역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 온 후에, 대만교회야말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교회를 깨우면, 이들과 연관된 전세계 화교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화교교회들이 일어서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지경이 말할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요즘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촌음을 아껴가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생생하고도 재미있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성경의 맥과 핵>을 집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저희가 지난 15년간 선교현장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게 (특히 그림과 표, 지도 등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넣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지요) 특화된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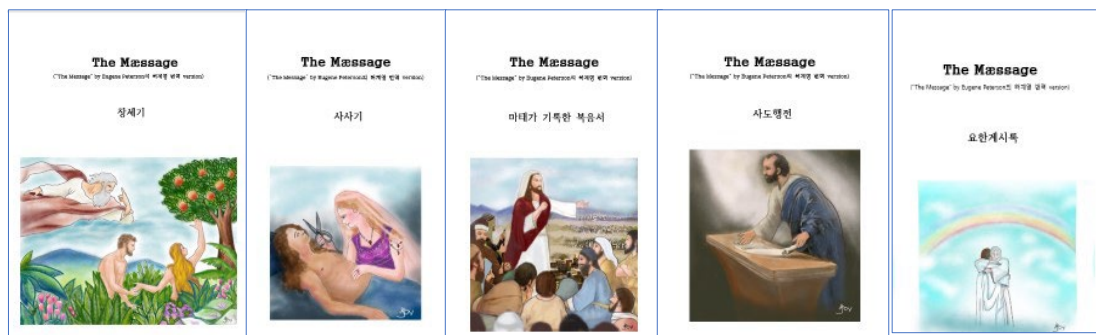
저희가 그동안 대만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아직 교재가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들을 일일이 프린트하고 복사해서 사용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아주 뜨겁긴 했습니다만 .... ㅎㅎ)

대만에서의 <성경의 맥과 핵> 출판은, 대만 목회자 성경교육을 통한 '선교대만'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출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 번역가를 섭외해 중국어로 번역 중이며, 번역 작업은 올 10월말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 4.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연애편지처럼, 가슴에 와 닿게'라는 모토로 번역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 허계영 선교사가 번역하고, 조문철 선교사가 감수한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통해 전 세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현재 신약성경은 전체가 번역 완료되었고,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번역 완료했습니다. 이 번역본은 <https://toomuchgrace.wixsite.com/message-korean>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기도제목>

### 1) 갈멜산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갈멜산교회는 현재 마을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관계로, 주중 집회는 물론이고 주일 집회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건축비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예배당으로 빌려 쓰고 있는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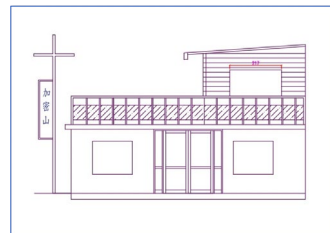
마을회관 내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집터  
(화재로 전소된 건물)



갈멜산교회 건축 설계도



건축공정을 위한 현장 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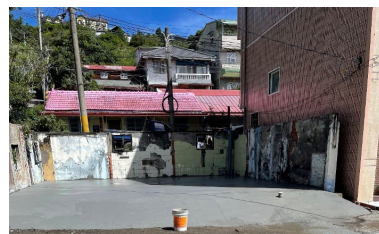
순조로운 건축공정을 위한 축복기도



2022.6.20. 드디어 공사 시작!



2022.6.24. 바닥공사 완료



## 2) 대만에서의 '성경의 맥과 핵' 교재 출판

'성경의 맥과 핵' 교재가 올해 내로 중국어로 잘 번역되고, 출판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전세계 화교교회들, 그리고 땅끝 선교지들에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여름방학 맞이 청년들 대상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7월 1일부터 6주간 매주 금요일 3시간씩 타이중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들과 대만 현지 청년들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세대가 준비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4)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들 조나단이 8월 16일 미국 뉴욕주 코넬대학에 박사과정 5년간 전액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유학의 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가서 좋은 교회, 좋은 지도교수님, 좋은 동료들, 좋은 룸메이트 만나 신앙안에서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딸 조안나가 여름방학 2달간 대만에 와서 지내다가 9월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Unity라는 IT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직장동료들을 만나 행복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5)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기도

저희 부부가 늘 성령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 혼, 육의 전인적 건강을 주시도록, 그리고 매주 해발 1,7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갈멜산 교회를 오가며 사역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